주일 메시지 요약 **2026년 2월 15일**

경건의 능력 딤후3:1-7

오늘부터 27일까지 니카라과와 엘살바도르에 선교를 진행합니다.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자신의 저주에서 나오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문이 됩니다. 이 일을 다른 문화권으로 가서 하는 것을 보고 선교라고 합니다. 이번 선교의 의미를 찾는다면 첫째는 엘살바도르에 문이 열린 것이고 또 하나는 한 교단과 선교를 지속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혹시 미국에도 문이 열리는 연결이 이번 선교를 통하여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해는 남미 렘넌트 운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가장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곳이 니카라과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 이번에 가면 조금 구체적인 의논들을 해 보려고 합니다. 기도 없이 되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이번 선교를 두고 많이 기도하고 응답 받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창4장은 성공한 예배와 실패한 예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피를 가지고 오는 모든 사람은 아벨과 같은 응답되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회복되므로 성경에 있는 약속대로 정복하는 증인의 삶이 다 되길 바랍니다.

1. 경건의 능력

1) 오늘 말씀은 말세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통하는 때가올 것이라고 하시면서 제일 먼저 오는 현상을 표현했는데 그것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 입니다. 가장 먼저 표현된 말세의 현상입니다. 참으로 의미 있고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2)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조금 더 상세하게 표현을 했는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 자기를 사랑하는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영적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3) 그러나 문제는 그 사랑이 삐뚤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자신을 귀하게 생각하면 될 건데 자랑을 하고 교만하여 지고 심지어는 남을 비방하는 데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자기 사랑의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동시에 그들은 돈을 사랑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돈이 싫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돈이 사람 위에 앉아 있으면 우상 숭배와 꼭 같은 영적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4) 그리고 조금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도 있습니다. 부모를 거역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은 이 시대의 대표적인 영적 문제라고 보아도 될 것입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꽁한 마음으로 사는 현상들 많이 있고 그것 때문에 2차 3차 부작용 옵니다. 학교 폭력이나 총기 문제 들이 전부 여기에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5) 그런데 오늘 본문의 수 없이 나열된 이 문제들의 근본 원인을 지적한 단어가 5절에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 시대적인 일 때문에 위에 열거된 모든 문제가 온 것입니다.
6) 경건의 능력은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 언약으로 세상을 사는 중에 나타납니다. 오직 이 길 외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길이 없습니다. 말세가 되어 세상에 복음이 사라지고 복음을 아주 하찮은 것으로 짓밟는 시대에 경건의 능력이 나타난다

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7)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위에 나열한 수 많은 증세들이 온 것입니다. 수 없이 더 많이 있겠지만 그 수 많은 문제들이 복음 누리는 이 한 가지로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8) 문제는 만 가지 답은 한 가지 입니다. 말세가 될수록 우리가 더 깊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언약으로 잡아야 할 이유 입니다. 그리스도에 관련된 성경 구절을 누리고 그 주간의 말씀을 정독하고 은혜 받으면 될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깊은 정시 기도를 주시고 24의 은혜를 주신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것입니다.

2. 말세와 영적 문제

1) 말세에 오는 문제는 전부 영성이 떨어져서 오는 것입니다. 복음과 예배와 찬송과 기도가 사라진 시대에 무엇이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런 문제들이 인간 관계 속에서 나타나고 그것이 심화되면 사회 문제가 되고 시대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교회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현상이 교회 안에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런 행동을 교회 안에서는 잘 안 합니다.

2) 그런데 간혹 이런 문제가 순간적인 실수로 튀어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실수였는데 사단은 이것을 순간적으로 잡고 무슨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이때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사과하는 자세가 되고 결과가 되었다고 생각되는 분은 용서의 자세를 유지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단이 박수치는 것은 막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목표 입니다

3)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멀리 둘러서 정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이 때에 직접적으로 정복을 하려고 하면 전부 다 죽고 오직 사단만 승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억울해도 이런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4) 요셉이 보디발 아내에게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바로 직접적으로 이 문제를 들고 일어섰다면 요셉은 더 죽었을 것이고 보디발의 아내도 상당한 손상을 입었을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정말로 원수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무 말하지 않고 나중에 총리가 되어 멀리 돌아서 이 문제를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보디발의 아내에게는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5) 보디발의 아내는 너무나 요셉이 고마웠을 것이고 요셉의 하나님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해 보았을 것입니다. 마음으로 신자가 되었을런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경건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언약 가진 자의 자세요 전략입니다. 언약을 많이 누리는 사람에게 오는 능력이며 답이 나면 누구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6) 우리의 정복은 이런 정복입니다. 결국은 복음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이런 정복을 우리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경건의 능력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란다. 이 능력이 평생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